

남편을 구타하는 부인에 대한 가족치료 사례연구

박 태 영 (송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I. 서론

본 사례연구에서는 남편과 시어머니 사이에서 부인의 부부간의 갈등이 야기되었고 이러한 갈등으로 인하여 부인은 남편과 말다툼 끝에 폭력을 행사하는 사례를 다룬 것이다. 연구자는 일반적으로 많은 가족치료 사례에서 고부간의 갈등이 주요 원인이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본다. 그러나 고부간의 갈등 뒤에 시어머니와 남편의 미분화 문제가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부인의 원가족과의 미분화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본 사례는 고부간의 갈등뿐만 아니라 친정부모와의 미분화로 인하여 부부간의 갈등을 해결하기가 더욱 어려웠던 사례라 볼 수 있다.

II. 치료에 대한 이론적 근거들

1. Murray Bowen의 가족체계이론

본 사례에서 남편은 유학 중에 귀국하여 국내에서 결혼을 하여 부인과 함께 외국에서 생활을 하였으며, 두 사람만 지낼 때에는 별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시어머니가 방문했을 경우에 부부간에 갈등이 일어났으며, 남편은 시어머니와 부인이 다툰 경우에 부인보다는 시어머니 편을 드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는 동안 부부간의 갈등이 심각해 지고 있었다. 그러나, 한편 부인의 원가족관계를 보면 부인은 친정아버지의 외도로 인하여 친정어머니와 밀착관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외도하는 아버지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있었고 아버지와 거리감을 두고 있었다. 친정아버지는 과거에 자신의 부모(현재 두 사람 모두

사망)와 관계가 안 좋았으며, 현재 형제와 스트레스를 받는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거리감을 두는 관계를 추구하고 있었다. 부인에 의하면, 친정아버지가 동생들 앞에서 딸(부인)의 권위를 인정해 주지 않아서 부인은 어렸을 때부터 두 남동생과 스트레스를 받는 관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두 동생들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경우가 있었다고 한다. 부인은 남편과 갈등상황이 일어났을 때 그러한 폭력성이 재현되고 있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었다.

2. MRI의 의사소통이론

본 사례에서는 시어머니와 부인 사이에 갈등이 야기되었을 때 부인의 입장을 두둔하기 보다는 시어머니의 입장을 두둔하는 의사소통방식을 사용하여 왔고, 부인은 남편의 이러한 의사소통으로 인하여 격앙된 상태로 남편에게 욕과 함께 폭력을 사용하였다. 부부간의 이러한 역기능적인 의사소통 표현방식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두 사람간의 관계를 악화시켜왔다고 볼 수 있다. 부인은 친정아버지와의 의사소통 표현방식에서 두 사람 간에 협상을 할 수 없는 의사소통방식을 사용하고 있었다. 특히, 시아버지는 딸에게 ‘너만 문제야! 너만 잘 하면 돼!’라는 메시지를 주었는데 남편도 친정아버지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보았을 때, 부부가 지금까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했던 방식의 이면에는 부인과 친정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했던 방식이 걸려 있었다. 또한 이러한 부인의 친정아버지와의 역기능적인 의사소통방식은 두 남동생들과의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따라서 치료자는 부인과 남편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그리고 이러한 악화된 관계를 유지시킬 수밖에 없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해왔던 역기능적인 방식을 찾아 지금까지 시도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방식으로 대체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례에서 부인의 역기능적인 의사소통 표현방식은 원가족과의 관계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했던 표현방식이 학습화되어 내려오는 표현방식이며, 이러한 표현방식 이면에는 원가족과의 분리문제가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치료자는 부인과 남편과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해왔던 역기능적인 표현방식의 변화에 초점을 두면서 근본적으로 원가족과의 분리 및 이러한 분리를 위한 지금까지 시도해왔던 역기능적인 표현방식이 아닌 새로운 의사소통방식을 사용하고자 하였다.

III. 연구 질문, 방법 및 분석

1. 연구 질문

첫째, 남편을 구타하는 부인에게 영향을 미친 요인은 무엇인가?

둘째, 남편을 구타하지 않게 된 부인에게 영향을 미친 요인은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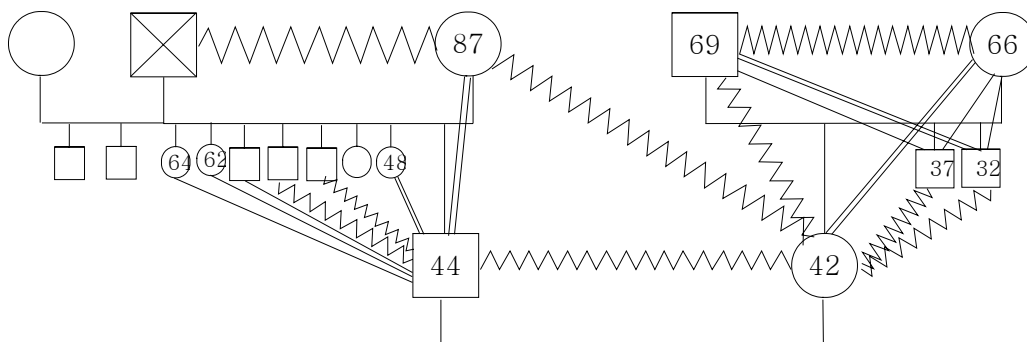
2. 연구대상 및 상담기간

치료 기간은 2006년 1월부터 2006년 4월까지 총 14회를 하였고, 개별상담과 부부상담, 가족상담, 전화상담을 병행하였다. 치료에 참석한 가족은 부부와 친정어머니 그리고 두 남동생 모두 5명이었다.

3. 분석방법으로서의 근거이론

본 사례의 분석방법으로는 근거이론을 활용하여 부인이 남편을 구타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인과 남편을 구타하지 않게 된 부인에게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축어록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그림 1. 가계도>



IV. 상담내용 분석

1. 부인의 증상

- (1) 부인의 자포자기의 심정
- (2) 부인의 우울증
- (3) 부인의 남편에 대한 피해의식
- (4) 부인의 이혼하고 싶은 심정
 - ① 답답함과 이혼하고 싶음
 - ② 친정모 때문에 이혼 못하는 부인
- (5) 남편이 변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부인의 생각
- (6) 부인의 불면증
- (7) 부인의 구타와 타인과의 언쟁
 - ① 남편에 대한 부인의 구타
 - ② 동생에 대한 부인의 구타
 - ③ 타인과의 싸움

2. 부인이 남편을 구타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인들에 관한 분석

- (1) 역기능적인 의사소통 방식
 - ① 부부간의 역기능적인 의사소통 방식
 - ② 고부간의 역기능적인 의사소통 방식
 - ③ 친정아버지의 역기능적인 의사소통 방식
 - ㉠ 아버지의 잔소리
 - ㉡ 가족을 배려하지 못하는 아버지의 일방적인 방식
 - ㉢ 아버지의 일방적인 의사소통 방식
 - ㉣ 아버지의 엄한 양육방식
 - ㉤ 부녀간의 역기능적인 의사소통 방식
 - ㉥ 모녀간의 역기능적인 의사소통 방식

- ④ 친정부모의 역기능적인 부부관계
 - ㉠ 남편의 외도
 - ㉡ 부부싸움
 - ㉢ 삼각관계
- ⑤ 부인과 남동생들과의 역기능적인 의사소통 방식
- ⑥ 부인의 친정식구들 간의 역기능적인 의사소통 방식
- ⑦ 남편과 장모와의 역기능적인 의사소통 방식

(2) 원가족으로부터 미분화된 부부

- ① 남편의 미분화
- ② 부인의 미분화
 - ㉠ 모녀간의 미분화
 - ㉡ 부녀간의 미분화
 - ㉢ 아버지의 외도로 인한 상처와 분노감
 - ㉣ 부녀간의 거리감을 두는 관계 유형
- ③ 부인의 친정에서의 과도한 역할
- ④ 친정아버지의 원가족과의 미분화

3. 남편을 구타하지 않게 된 부인에게 영향을 미친 요인들에 대한 분석

(1) 기능적인 의사소통 방식

- ① 부부간의 기능적인 의사소통 방식
- ② 부인과 남동생의 기능적인 의사소통 방식
- ③ 친정부모의 긍정적인 부부관계
- ④ 긍정적인 부녀관계
 - ㉠ 딸을 자랑스러워했던 아버지
 - ㉡ 아버지를 사랑했던 부인
 - ㉢ 기능적인 의사소통 방식

(2) 원가족으로부터 분화되는 부부

- ① 남편의 분화
- ② 부인의 분화
 - ㉠ 모녀의 분화

㉔ 부인의 미분화에 대한 인식

(3) 친정가족과의 관계

① 누나에 대한 남동생들의 수용

IV. 결론

이 사례에서 부인은 남편과의 관계에서 남편이 시어머니의 편을 들고, 자신의 입장을 대변해 주지 못했을 경우와 남편의 부정적인 의사소통방식과 부인과 친정아버지의 해결되지 못한 부정적인 관계로 인하여 정서적인 미분화와 역기능적인 의사소통방식으로 부부관계는 더욱 악화되었다. 치료자는 근본적으로 부부간의 역기능적인 의사소통방식을 지금까지 시도해 보지 않았던 새로운 방식 또는 과거에 성공적이었던 의사소통방식으로 대체시키면서, 상담을 하는 동안은 부인이 원하는 한 시댁을 방문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고, 남편만 시댁을 방문하게 하였다. 남편 또한 처가 방문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담하는 동안은 처가를 방문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다. 특히 구정 때 남편은 혼자 시댁을 방문하였고 부인은 친정과 시댁 모두 방문하지 않아서 두 사람간의 충돌은 없었다. 부인은 어머니가 아버지를 사랑하였다는 말과 아버지 또한 어머니를 사랑하였다는 말을 들음으로써 자신은 어머니로부터 속았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한편으로는 친정 부모로부터 정서적으로 분리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맞이하였다. 또한 둘째 남동생과 관계회복의 시간을 가졌으나, 첫째 남동생은 누나와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여 누나와의 상담을 피하였다. 치료자는 부인과 아버지와의 두절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전화로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었으나 아버지는 딸과의 대화를 원하지 않는다면서 치료자의 상담 제안을 거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는 13회에서 부부관계가 매우 호전되었고, 다행히 상담 도중에 두 사람은 미국에 함께 여행을 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을 가졌고 역기능적인 의사소통방식에서 기능적인 의사소통방식으로 변화함으로써 관계가 더욱 좋아졌다.